



광양시, '장수체조교실' 확대 운영

광양시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수체조 교실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지난해 8개 읍·면·동 50개 마을에서 실시했던 장수체조 교실을 올해에는 19개소, 38%가 증가한 69개 마을로 확대한다.

그동안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장수체조교실은 어르신들의 꾸준한 확대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읍·면·동 장수체조교실 어르신들이 참여해 지난해 9월에 열린 '제1회 백세건강 장수체조 시연대회'에서 그동안의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운동하는 보람과 재미를 얻는 등 어르신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적극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보다 19개소 증가한 69개 마을로 확대 건강체조 통해 근력강화·퇴행성질환 예방



어르신 장수체조교실에서는 농촌 어르신들은 대상으로 생활체조, 요가, 스트레칭과 생활체조, 라인체조 등 다양한 건강체조를 통해 근력강화와 퇴행성질환을 예방하게 된다.

이를 통해 100세 시대를 맞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현숙 건강증진팀장은 "이번 장수체조 건강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웃고 즐기면서 정신적인 행복까지 담으로 가져가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장수체조 시연대회를 개최해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배운 체조를 무대에서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 집중 홍보 수도권 공략...홍보의 날 운영

오는 20일 SRT 수서역서 관광명소·지역특산물 소개

나주시는 올해 전라도 정명 천년과 관광객 200만 시대 개막을 알리는 '나주시 홍보의 날'을 이달 20일 SRT수서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주시는 천년고도 묵사교를 나주 지역 대표 관광명소 안내와 더불어 나주배, 세지멜론, 나주한라봉 등 지역 특산물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나주시는 이번 수도권 홍보 행사를 통해 전라도 정명 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하고, 역사문화관광도시 나주 방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2018년은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진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겨난 지 천 년이 되는

한다. 1018년 고려 현종(9년)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강남도(전주)와 해양도(나주)를 합쳐 전라도를 만들었다.

'홍보의 날 행사'에는 SRT수서역 여행상품관계자와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나주여행상품과 나주 대표 관광지인 금성관, 국립나주박물관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 빛가람 전시장, 테마여행 10선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나주시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전라도 정명 천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향우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나주를 찾아 전라도 정명과 고한 맛, 맛있는 손맛, 그리고 훈훈한 인심을 느끼고 가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화순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만연산 숲길 등서 숲해설 및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은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해설 및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숲해설 및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만연산 숲길, 수민리 생태숲공원, 오감연결길, 동구리호수공원,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 숲의 환경 및 생물의 다양성 이해하기, 숲에서의 오감체험, 목공예체험 등의 내용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군은 2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5-6세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드리 복지관,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 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30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산림교육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 숲해설 분야 민

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운영된다.

군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참여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 시기를 놓친 기관뿐 아니라 숲해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화순군민은 누구나 신청해 숲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화순군청 산림산유과 휴양림관리팀(전화 379-3733)으로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사현장 관계자 회의 개최

설 대비 체불임금 제로(Zero) 및 안전사고 예방 노력 당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에서는 최근 공사감독 공무원, 현장소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이 참석한 'GFEZ 공사현장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가오는 설날에 현장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현장별 임금 체불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였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체불임금 제로(Zero)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하였다.

현재, 광양경제청에서는 울촌제2산단·황금산단·세종산단 진입도로 등 도로공사 3개소와 세종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에 총 1,015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일 임금 지불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사공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장 '출판기념회' 가져

저서 '정의야 가자, 희망의 세상으로' 자신만의 정책구상 담겨



의원, 채운석 더불어민주당 고문, 서갑원 더불어민주당 순천 지역위원장, 이만수 전남시군의회의장, 임종기 의장을 비롯해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야 가자, 희망의 세상으로' 책에는 3선 의원과 시의정을 지낸 임의정의 걸어온 발자취와 꿈이 녹아 있다.

시의원으로 일하면서 순천역사 바로세우기, 신대지구 중학교 추가건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공청회 촉구, 의장직에서 탄핵당할 뻔한 에

기, 순천문화재단 설립과 시청사 건립 시민위원회 운영 조폐안 등 자신만의 정책구상이 담겨 있다.

한편 임종기 의장은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설립에 대하여 2013년 도부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건의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다.

이에 신대지구 중학교 추가건립은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유보되었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신대지구에 중학교 추가건립 아이디어로 순천시로부터 학교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재심사 청구하면 된다는 것을 제안하여 중학교 추가 설립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암삼